

제2352호 2019.4.14. **주님 수난 성지주일**

강론

평화의 임금님이 오신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전례시기 중 가장 거룩한 시기, 성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교회의 전례 안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주간의 시작은 당신의 죽음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행진과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앞길에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겜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즈카르야 예언자의 예언처럼 평화를 가져오는 겸손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를 행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행진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찬미와 기쁨,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들려오는 기쁨과 환희에 마음이 흔들려 교만해질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서는 바오로 사도의 말처럼,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셨고’, ‘낮추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비우심으로써 하느님의 아들이신 당신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으셨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당신 자신을 오히려 낮추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서는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는 왕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주간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비

우시고’, ‘낮추시는’ 저 모습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비우시고, 낮추셨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사람들에게 넘겨져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참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의 죽음에서 아버지의 버려두심을 경험하지만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하시면서 온전히 죽음을 받아들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끝나버린 허무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이 비워내시고, 낮추신 그 자리를 부활이라는 선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 의지하면서 당신 자신을 비워내고, 낮추는 그 사람에게서 아버지의 영광, 즉 부활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행진에 함께 동참할 것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기심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비우심과 낮추심의 절정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자신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길에 이 성주간의 시간 안에서는 잠깐 멈추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행진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낮추면서 ‘섬김의 길’, ‘내어줌의 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잊는 길’을 걸어갔으면 합니다.



장성근 에단 신부 | 사파동본당 보좌

주일 진례

입성기념식복음 루카 19,28-40

본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수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제 1 독서 이사 50,4-7

화답송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 2 독서 필리 2,6-11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수난 복음 루카 22,14-23,56 또는 23,1-49

영성체송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청원기도.-성인 랄프5. 온전히 비우든지, 온전히 채우든지

진례와 신앙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엄마한테 기적이 필요하죠. 보스톤에서 기적을 이루라는 주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기적을 믿어야 할 사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엄마, 몇 달만 더 참아.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깨워줄게.
그 어떤 것보다도 혹독한 훈련을 내 힘으로 견뎌낼 수 있다면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루도 안 쉬고 달렸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오래 걸려서 미안해.

두 선수, 결승선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립니다! 이젠 순전히 정신력의 싸움입니다! 무려 26마일에 걸친 박빙의 승부 끝에 마침내 승자가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숨막히는 경기는 처음 봅니다! 역사에 기록될 최고의 명승부였습니다! - 영화, 리틀러너 Saint Ralph

작은 성당을 짓는 일, 하느님의 일이라 여기면서도 인간적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잘 해냈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겠지요. 기도한다고 했지만, 욕심과 집착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일이 아닌 하느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고 느낀 순간, 마음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청원기도는 철저한 비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과 집착이 아닌 상황에서도, 너무나 간절해서 절대 마음을 비울 수 없는 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랄프처럼요. 소중한 엄마를 잃을 수 있는 상황 앞에서, 랄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위해 당신을 온전히 바치신 예수님을, 랄프는 작지만 닮았습니다.

내 욕심을 온전히 비우는 길을 통해서나, 사랑을 온전히 채우는 길을 통해서, 우리의 바람은 청원기도가 되고, 하느님 뜻에 맞는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꾸르실료 도입50주년기념
교구 울뜨레야



2019
천주교 마산교구
꾸르실료 도입 50주년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시편46,11)

5. 11.토 10:00~16:00 / 창원 문성대학 체육관

[제1부] 만남과 울뜨레야 (10:00~12:00)	[제2부] 우정의 시간 (13:00~15:00)	[제3부] 기념 미사 (15:00~16:00)
▶ 50년 회고 및 관련 영상	▶ 노래 / 율동	▶ 미사집전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 내빈 입장	▶ 경품 추첨	신부님들께서는 약식 제의와 흰색 영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룰 룰 (평신도, 성직자)		▶ 묵주기도 봉헌 (9일기도 및 고리기도)

주최 천주교 마산교구 주관 마산교구 꾸르실료 사무국

● 가정사목분과위원 연수



| 가정사목분과위원 연수가 3월 24일 교구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연수는 마산지구 6개, 창원지구 11개, 진주지구 7개, 거제지구 4개 본당에서 총 52명이 참석하였다. 연수는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손혜경 마리잔느 수녀가 ‘보고 듣고 말하기’란 주제로 강의하였다. 또한 이현우 요한 신부(가정사목국장)는 ‘본당 가정사목분과의 역할’이란 주제로 본당의 역할과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파견 미사로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10월 중 추계 가정사목분과위원 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다.

● 진주 가좌동본당 아치에스 행사



| 가좌동성당 순교자들의 모후 꾸리아(담당 : 김형렬 요셉 신부, 단장 : 오정자 소화 데레사)는 3월 24일 성전에서 아치에스 행사를 실시하였다. 소년 브레시디움 단원을 비롯한 14개 브레시디움의 행동 및 협조 단원이 참여한 행사는 기도를 시작으로 단원봉헌 및 성체강복으로 마무리했다. 김형렬 신부는 과달루페 성모 발현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멕시코 사람을 가톨릭 신자로 변화시켰듯이 단원도 성모님이 가진 든든한 힘을 믿고 하느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자고 훈화하였다.

●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모후 브레시디움 3000차 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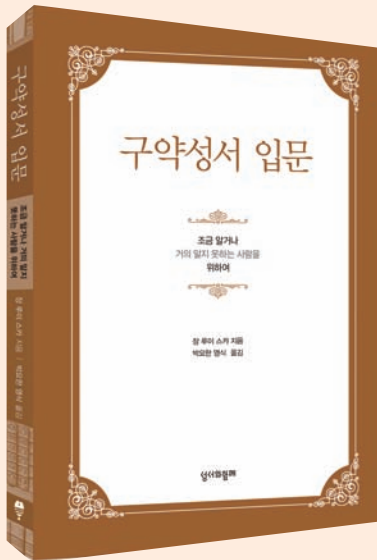


| 여좌동성당(담당 : 하춘수 레오 신부)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모후 브레시디움은 3월 27일 갈릴레아관에서 브레시디움 3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모후 브레시디움은 1961년 6월 6일 진해구 중앙동성당에서 시작하여 1979년 12월 여좌동성당 완공 후 1983년 7월 여좌 평화의 모후 꾸리아 창단으로 옮겨왔다. 현재 단장 윤덕기 루시아, 부단장 윤안자 수산나, 서기 정현숙 글라라, 회계 박정순 유스티나, 행동단원 4명으로 구성되어 활동중이다.

● 마산 레지아 진해 꼬미시움 및 여좌꾸리아 2단계 기사교육



| 마산 치명자의 모후 레지아(담당 : 이원태 클레멘스 신부, 단장 : 강동주 세레자 요한)는 3월 30일 진해 꼬미시움 및 여좌꾸리아 단원을 대상으로 2단계 기사교육을 중앙동성당에서 실시하였다.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실시된 교육에서 단장의 인사말과 더불어 이형수 몬시뇰(블라시오)은 ‘레지오의 참된 영성 생활’을 주제로 “영성은 깨달음이며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이어 이영옥 마꼬리아 교육위원은 음악과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묵상 찬미를 이끌었다.



장 루이 스카 지음, 박요한 영식 옮김
248쪽 | 성서와함께
구입 문의 : 교구청 내 성바오로서원
055)248-3089

구약성서의 남다른 특성을 분명하게 일러 주려 한다. 구약성서 전체와 낱권들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그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책을 쓴 장 루이 스카 신부는 교황청립 성서대학에서 구약성서를 평생 가르친 노교수이자, 세계적으로 저명한 구약성서 전문가다. 오랜 강의 경험과 전문가의 식견으로, 이제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현대 문화와 비교해 가며 구약성서를 소개한다.

책은 “왜 성경을 읽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특히 구약성서에 담긴 낯선 표현, 당혹스러운 내용에 놀라 그 책을 덮으려는 이들에게, 저자는 독자를 당황케 하는 여호수아 기의 한 단락을 예로 들어 그런 내용이 진정 의도하는 바가 무

구약성서의 특성을 콕콕 짚어 주는 구약성서 입문, 새 눈을 열어 주다

엇인지 친절하게 알려 준다. 이어 저자는 방대한 도서관을 보유한 고대 근동의 강대국에 맞서 자기네 정체성을 표현한 다양한 장르의 글을 모은 구약성서를 작은 규모의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이라 부르면서, 그 형성 과정과 배경, 히브리 성경과 그리스도교 구약성경의 차이점을 일러 준다.

구약성서의 첫머리에 놓인 오경을 저자는 “이스라엘의 헌법”이라 부른다. 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인지, 왜 성조가 세 명으로 소개되는지, 왜 요셉을 창세기의 “미국인”이라 부를 수 있는지, “예언자 모세”와 기원 이야기가 지닌 중요성 등등에 대해 구약성서의 절정이자 토대인 오경의 다양한 특성을 바로 알게끔 자세하게 소개한다.

저자는 역사서를 ‘구성된 역사’로 일컬으며, 그 안에 실려 있는 왕정에 대한 상반된 두 갈래 목소리와 함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는 편집자의 시각을 들어 역사서를 읽는 눈을 일러 준다. 또 예언자를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당대의 문필가, 기자, 편집자, 여론 형성가”라며, 그들이 당대에 전한 메시지의 알짜와 공통점, 전승 과정을 소개한다. 또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도자들”이 쓴 여러 지혜서의 특성을 각각 언급한다. 예컨대 잠언은 ‘간식’ 같은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며 코헬렛을 그리스의 디오게네스와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시편, 애가, 아가 같은 이스라엘의 시가들과 비교적 늦은 시기에 쓰인 역대기, 에즈라-느헤미야기, 마카베오기, 다니엘서 등을 그 시대 상황과 연관하여 소개한다.

저자는 역사서를 ‘구성된 역사’로 일컬으며, 그 안에 실려 있는 왕정에 대한 상반된 두 갈래 목소리와 함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는 편집자의 시각을 들어 역사서를 읽는 눈을 일러 준다. 또 예언자를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당대의 문필가, 기자, 편집자, 여론 형성가”라며, 그들이 당대에 전한 메시지의 알짜와 공통점, 전승 과정을 소개한다. 또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도자들”이 쓴 여러 지혜서의 특성을 각각 언급한다. 예컨대 잠언은 ‘간식’ 같은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며 코헬렛을 그리스의 디오게네스와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시편, 애가, 아가 같은 이스라엘의 시가들과 비교적 늦은 시기에 쓰인 역대기, 에즈라-느헤미야기, 마카베오기, 다니엘서 등을 그 시대 상황과 연관하여 소개한다.

함께 권하는 도서



열두 소예언서 한 권으로 읽기

분량이 적어서 소예언서라고 부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안소근 지음, 224쪽, 성서와함께 펴냄.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드야, 요나, 미카, 나훔, 하바쿱, 스바니야, 하깨이, 즈카르야, 말라기. 한번은 들어본 듯한 이름들이지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 본 적은 있는 이름들이지요? 그런데 막상 이 소예언서 각 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두 소예언서는 그렇게 약간은 낯선 책들입니다. 짧아서 언제든 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제대로 읽게 되지 않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열두 소예언서를 한 권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열두 소예언서 한 권으로 읽기》와 함께 소예언서 읽기에 도전해 보세요!

“어른이 만든 아이들의 세상 4”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우리 아이들이 무서워집니다. “예휴 내가 어릴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잔소리가 막
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모두가 가난하다는 비슷한 사회적 여건
때문에 사는 모습이 대부분 대동소이했습니다. 가난한 농사꾼이거나, 가난한 도시 노동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삶의 차이가 너무 큼니다. 나라 전체 돈의 절반 이상을
2~3% 특정 부자들이 가지고 있고, 중산층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계층이 두껍지를 못합니
다. 이렇게 빈부 차가 심할 때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가치관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
니다. 특히 국정 농단의 여파로 권력의 부끄러운 민낯이 세상에 철저하게 드러나고 말았습
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긍정적인 일이 있습니다. 윤리연구센터는 “**국정농단에 맞
선 촛불시위의 과정에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다소 높아졌다.**”고 합니다.
〈친구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질문에 2015년에는 초중고생 전체가
32%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2017년도에는 22%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10% 줄어들었습니
다. 그만큼 전 국민이 나섰던 촛불시위를 보면서, 함께할 때 세상이 바뀐다는 공동체 의
식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친구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못 본 척을 한다〉는 질문에
도 지수 점수 3.6점이 올랐습니다. 친구가 당하는 폭행을 못 본 척 하면 그 순간은 괜찮
겠지만, 결국 그 폭행 피해자가 다음에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이 상승한 것입
니다. 윤리센터는 “**인성 회복을 통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경제
민주화를 통한 사회정의 구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합
니다.

배고픈 예수님과 그 부모

영혼의 트랙
교구 가톨릭 문인회

이선향 안젤라 • 시인

“배가 고파요.” “배가 아파요.”

아침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온 학생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한 부모 가정이라 아침을 챙겨줄 엄마가 없거나 엄마가 있어도
밥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
라는 아이들이 아침도 챙겨 먹지 못해 배가 고프고, 고프다 보
면 아파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다.

“엄마가 바빠요.” “엄마가 늦잠자서 못 먹었어요.”

가끔 아이가 늦잠을 자서 못 먹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
수는 엄마가 챙겨주지 않은 경우다. 아이에게 아침밥을 챙겨주
지 않는 엄마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부모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아이의 성장에 대
한 관심이나 사랑, 정성이 풍성할 수가 없다. 자녀 양육에 정답
은 없지만 이제 막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존감을 키우는 초등
학생에게 부모의 사랑과 관심은 필수적이다. 이런 결핍을 겪는
아이의 그 사랑을 어디에서 채워야 하는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부모가 되어버린 나 자신을 생각해본다.

하느님께서 주신 자녀이지만 현실적으로 내 욕심대로만 이끌려
고 하였고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이 별로 없다. 그야
말로 잘 먹이고 입히고, 키우면 내 할 일을 다 한 듯했고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욕심이나 기대치에 못 미
치면 비난에 가까운 꾸지람을 했었다.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
으면 공부나 해야지. 뭐해?’ 이런 마인드로 내 아이들의 어린 시
절을 보낸 것 같아 제일 후회스럽다.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모든 일을 멈추고 아이들처럼 놀아주고 아
이들 말을 들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같이 보
낼 것이다.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아
이는 자신을 팽개치는 부모조차도 사랑하고 좋아한다. 물론 부
모도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 준비되지 못한 부모가 준 상처가 자녀
의 일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다시 자녀의 상처가 부모나 사
회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아동학과와 방치, 무엇 때문일까? 아! 배고픈 예수님을 어떻
게 해야 하나?

기억할 사제

4. 15.(월) : 故 조재영 신부 3주기



교구장 동정

일 시 : 4. 15.(월) 19:30
장 소 : 사파동성당
내 용 :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미사

일 시 : 4. 18.(목) 11:00
장 소 : 주교좌 양덕동성당
내 용 : 성유축성미사

일 시 : 4. 21.(주일) 11:00
장 소 : 주교좌 양덕동성당
내 용 :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 재무평의회 ◆

일 시 : 4. 16.(화) 10:00
장 소 : 교구청

◆ 성유축성미사 ◆

일 시 : 4. 18.(목) 11:00
장 소 : 주교좌 양덕동성당

교구·분당

■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나오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 명 : 정은유
담당판사 : 여인석(베드로) 신부
장 소 : 교구 법원
마 감 : 4. 25.(목)까지
문 의 : 법원 055.249.7111

■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 상 :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 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 의 :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 청년성가집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안내

가 격 : 1만5천 원
문 의 : 청년부 249-7065
카톨릭뉴스친구 검색 : 청년성서모임 성가집 주문

■ 옥봉동본당 반주자 모집

재능있는 교우님들의 귀한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 의 : 사무실 055.741.2442
수녀원 055.741.4854

■ 교구 합창 단원 모집

연 습 : 매주 (화) 19:30
장 소 : 교구청 1층 강당
대 상 : 남·여 신자(만 55세 까지)
문 의 : 교구 합창단 총무 010.4589.8120

위원회·기관·단체

■ 교구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 매 (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 매 (주일) 14:00/ 칠암동성당
거제 : 매 (토)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 매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 매 (주일) 12:00/ 칠암동성당
통영 : 매 2, 4주 (토) 19:30/ 대건성당
거제 : 매 2, 4주 (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 매 3주 (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 매 3주 (토) 22:30/ 국산공소
문 의 :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 교구 체나콜로(다락방) 4월 월기도 모임

일 시 : 4. 22.(월) 13:00~15:00
장 소 : 상평동성당(미사준비)
문 의 : 회장 010.9399.5454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4월 봉사자 월례회

일 시 : 4. 22.(월) 미사 14:00 /
월례회 15:00
장 소 : 태평동성당
문 의 : 010.3903.8234

■ 마산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내 용 : 식당봉사, 방과후수업(요리, 방송댄스, 볼링)
기 간 : 3월부터 12월
장 소 : 마산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
문 의 : 055.247.5195~7

■ 고성 천사의 집 자원봉사자 모집

기 간 : 상시(평일 및 주말)
장 소 : 고성 천사의 집 / 분야 : 용접
문 의 : 055.673.6609, 010.4557.3251

수도회

■ 살레시오 젊음의집 상담실 프로그램

효소단식과 함께하는 힐링 피정
일 시 : 4. 27.~28./ 5. 25.~26./ 6. 22.~23.
(첫날 19:00~다음 날 16:00)
대 상 : 몸, 마음, 영적 돌봄에 관심 있는 여성
비 용 : 월 10만 원 (매월 선착순 12명 모집)

엄마랑 누이랑 가족모래놀이
과 정 : 4월부터 7월(4/7, 11:00~12:30 시작)
대 상 : 유치부, 초등부 자녀를 둔 가정
비 용 : 5 만원
※ 개인, 집단, 가족, 부부 상담 수시 접수
※ 복사단, 첫 영성체반, 신심단체 피정 수시 접수
문 의 : 055.255.8295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SHINSEGAE UROLOGY & SKIN CLINIC 피부질환/ 비뇨기질환 · 수술/ 전립선암 검진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F(자유시장 사거리)	(주) 성운고속관광 "신자본 우대 합니다" 45인승 (대형) 성지순례/출퇴근/일반여행/산악회 16인승 (벤츠) 골프/VIP/공항투어/웨딩/가족관광 대표 김종규 바오로 010.4588.3448/055.273.0505	이안 디자인 디자인팀 ian21.com 문화사업팀 gil1004.com 디자인·출판·인쇄 각종출판물·소식지·보고서·카달로그 리플렛·팝플렛·삽화·일러스트 제작 055)264.4627, 010.9876.5000	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table><tr><td>5월 24일</td><td>코카서스 3국 성지순례</td><td>13일 415 만원</td></tr><tr><td>6월 12일</td><td>성모발현지 성지순례</td><td>13일 399 만원</td></tr><tr><td>8월 20일</td><td>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td><td>11일 350 만원</td></tr><tr><td>8월 20일</td><td>메주고리에, 발칸, 이탈리아</td><td>12일 429 만원</td></tr></table> ▶출발 확정 · 전일정 공동경비포함 ◀ 분도여행사 02.852.8525	5월 24일	코카서스 3국 성지순례	13일 415 만원	6월 12일	성모발현지 성지순례	13일 399 만원	8월 20일	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	11일 350 만원	8월 20일	메주고리에, 발칸, 이탈리아	12일 429 만원
5월 24일	코카서스 3국 성지순례	13일 415 만원													
6월 12일	성모발현지 성지순례	13일 399 만원													
8월 20일	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	11일 350 만원													
8월 20일	메주고리에, 발칸, 이탈리아	12일 429 만원													
베트남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부산 or 대구 출발 직항편 매일확보 / 전문 교우가이드 배치 1. 북부 순교성지 + 하노이/하롱베이 3박5일 (110만원~) 2. 중부 성모발현지 + 다낭/호이안 3박5일 (110만원~) 3. 북부 + 중부 성지 핵심일정 포함 4박6일 (130만원~) < 분당 및 신심단체 환영, 소규모 그룹 연립(상시 모집), 별도일정 협의가능 > 투어찬스 대표 이승준 요한 보스코 (미산 성제) 010-2992-4785	우리농 직매장 2호 생명공동체 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3: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T. 055.293.5605	전북지역 성지순례 4. 27.(토) 07:30 창원시청 출발 천호성지, 전주 전통성당/치명자산 참가비 4만원 / www.mrtouring.com 미래고속관광 055.333.6300 대표 우종한 리차드 010.3720.0303													

■ 청년 부활 전례 피정

일 시 : 4. 19.(금) 16:00~21.(주일) 13:00
장 소 : 튕짱포교베네딕도 대구수녀원
대 상 : 35세 이하 청년 누구나(미혼)
문 의 : 010.8519.3431

■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 모집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살고자 하는 50세 이하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모 집 : 3월 중~6월/ 해당 지역 전화 요망
창 원 : 010.4542.0347
마 산 : 010.7315.6059
진 해 : 010.8583.4350
거 제 : 010.3807.1618
거 창 : 010.4630.2838
내서·함안 : 010.5006.6254
통영·고성 : 010.2836.7720
산청·함양 : 010.5911.8792
진주하대동 : 010.3009.0650
진주철암동 : 010.2776.2414
진주신안동 : 010.8831.3311

■ 부산교구 성령대회

일 시 : 4. 27.(토) 09:00~18:00
장 소 : 부산가톨릭대학교
강 사 : 임문철 신부(제주교구)
진홍장 타데오(전 삼성산 회장)
미 사 : 손삼석 요셉 주교 / 지도 사제단
문 의 : 055.382.9465

■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부부나들이 피정

일 시 : 5. 25.(토) 14:00~26.(주일) 17:00
강 사 :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장 소 : 아론의 집
회 비 : 1 부부 15만 원(비신자, 냉담자 환영)
신협 131-020-141399 천주교서울대교구
준 비 : 미사, 수건, 치약, 개인컵, 편한 신발
문 의 : 010.4204.1522

■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 시 : 매주(수) 14:00~17:30, 19:30~21:00
장 소 : 중동성당
대 상 : 신자, 일반인
내 용 :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
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 의 :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 제주 힐링 성지순례 3일 (가톨릭사회경제연합)

일 시 : 5. 28./ 6. 4./ 7. 12./ 8. 9./ 9. 17
장 소 : 제주성지 6곳 (성지해설)
문 의 : 064.805.9689/ 010.5034.8052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미사

일 시 : 4. 15.(월) 19:30
장 소 : 사파동 성당
주 레 :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주 최 :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문 의 : 정평위 055.261.8201
주차공간이 없사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 신앙대학 심화과정 신청 안내 ::

일 정 : 매월 둘째 주 (토) 13:00~17:00
(4/13, 5/18, 6/8, 7/13, 9/21, 10/12, 11/9)
장 소 : 교구청 1층 대강당
대 상 : 신앙대학 졸업자 및 관심있는 모든 신자
과 목 : 1. 하느님 계획안에 있는 인간 사랑(몸 신학) (강형섭 신부,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장)
2. 성경과 예수님의 발자취 (전광진 신부, 들꽃마을 민들레 공동체 및 노인복지센터 원장)
수강료 : 12만 원 (교재비 포함)
신 청 : 수시 접수 중
문 의 : 사목국 055.249.7021~3
담당자 010.5034.6168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 레	문 의
교 구	4. 15.(월) 19:00	월남동성당	성장의 비결	허철수 신부(미카엘)	허철수 신부(미카엘)	010-5072-5612
창원지구	4. 15.(월) 19:00	반 송 성 당	시련은 은총입니다	김완식(요셉, 선교사)	정종규 신부(클라로 원로사목)	010-9677-4224
청 년	4. 16.(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찬양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이동진 안셀모 신부)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한국외방선교회	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 /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성소국장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4. 20(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가톨릭신문 투어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 5/13 동부유럽 12일 379만원 ▶ 5/21 이스라엘 일주 9일 360만원 ▶ 5/23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48만원 ▶ 6/2 터키, 그리스 13일 395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tour.org	 더편한요양병원 장기요양입원,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통증치료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신시설,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합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 055.391.1205	 Raphael 라파엘여행사 ◆ 5/1, 6/4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289만원) ◆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 10일 (335만원) ◆ 6/3, 6/17 터키, 그리스 12일 (365만원) ◆ 6/4, 10/9 홍콩마카오 4일 (12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	---	--	---

• 파스카 삼일

파스카 삼일은 성주간 목요일부터 부활 주일까지로 실재론 4일이다. 성목요일은 양분된다. 저녁 미사부터 파스카 삼일이 시작되고 오전의 성유축성 미사와 저녁 미사 전까지는 사순시기로 분류된다. 유대인은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난 것으로 여겼다. 목요일 저녁은 금요일 시작인 셈이다. 성목요일 저녁 미사부터 파스카 삼일이 시작되는 이유다. 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인 전례력에 관한 규범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파스카 삼일은 주님 만찬 저녁 미사로 시작해 파스카 성야에 절정을 이루고 부활 주일에 끝난다.’ 사순시기에서 부활시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파스카 삼일로 확대 해석한 것이다. 그만큼 소중하게 받아들이자는 취지다

파스카Pascha는 건너갔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건을 기념한다. 성경의 이집트는 쉽게 보내주지 않았다. 모세는 재앙을 예언했고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인 만자들이 죽는 참변이었다. 천사는 히브리인에게 양의 피를 대문간에 뿌리라 했다. 그날 밤, 피가 뿌려진 집은 아무 일 없었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변을 당했다. 히브리인 집은 천사가 건너뛰었기에 무사했던 것이다. 파스카 축제의 등장이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새로운 파스카로 여겼다. 그분 피로 죽음을 건너뛰게 되었고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믿었다. 교우들은 주일에 모여 부활 사건을 되새기며 빵을 나누었다. 유대인의 파스카 축제 가까운 주일엔 더욱 성대하게 지냈다. 이 날을 부른 첫 용어는 부활절이 아니라 파스카였고 금요일과 토요일만 예절이 있었다. 4세기 이후 목요일 만찬 미사가 첨가되어 성삼일이 되었다.

이후 파스카 삼일에 변화가 나타났다. 수난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성목요일 만찬 미사와 발 씻김예식, 성금요일 십자가 경배, 성토요일 부활초 축복이다. 이렇게 해서 목요일 미사부터 모든 예식은 토요일 파스카 성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활초는 초기부터 있었고 지금의 모습은 최근에 등장했다. 1955년 전례 개혁 때 통일된 모습을 갖춘 것이다. 사순절은 예비교우 준비기간이기도 했다. 사순절 6주간 동안 집중교육을 받았고 부활 축일 때 세례 받았다. 성금요일과 토요일엔 단식하며 마무리 준비를 마쳤다. 당시 단식은 하루 한 번 식사하는 것이었다. 초기 교우들에게 파스카 삼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다시 살아나는 강렬한 체험이었다.

생명의 주인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3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며 청원서를 냈다. 다른 나라들이 사형을 폐지하는 방법은 국회의 사형폐지 입법,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 국민투표 등 대체로 세 가지인데 이미 주교회의는 올해 2월 12일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도 제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주교회의 정평위원장 배기현 주교는 “사형제 폐지 요청은 귀한 생명을 잃은 결과로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용서라는 길을 걸어 달라. 사형제 폐지 요청이 흉악한 범죄로 생명을 잃은 당사자의 가족들이 받아들이기엔 어려울 것이라 헤아리고, 엄청난 범죄와 만행의 피해로 불안해하는 이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인간이 걸어가야만 하는 더 귀한 길, 곧 생명을 아끼는 길에 더 큰 마음으로 다가서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번 청원문에서 그동안 사형폐지운동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구와 실천, 사형수와 피해자 가족 간 화해 프로그램 등 폭넓은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사형폐지는 강력범죄를 가벼이 여긴

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원칙적이고 근본적 방법으로 나아가는 교두보”임을 강조하였다.

백남해(사회복지국장) 신부가 최근 출간한 ‘Fun Fun 사회교리’에 따르면 사형제도 찬성 이유를 네 가지로 들고 있는데 즉 죄수 유지비용 낭비, 범죄율 증가, 재 범죄 가능성, 국민 여론이 사형제도가 존속(69.9%, 2015년)되어야 한다는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 신부는 “낭비되는 세금은 이곳 말고도 너무나 많이 있고, 사형 집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범죄와 벌에 대한 경고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은 형벌을 통한 두려움보다는 교화나 교육을 통한 것이 더 근본적이지 않겠습니까. 또 어떨 때는 한 사람의 잘못보다는 사회 전체가 물질숭배주의에 빠지고, 하느님 얼굴을 잊어버린 풍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천주교 신자라면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선함을 믿고, 인간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강변한다.

한정적이고 불완전한 사람의 판단력으로 인간이 인간 생명을 빼앗는 오류를 이제는 정말 끝냈으면 한다.